

李 箱 研 究

—「逢別記」의 精神分析—

A Psychoanalytic Exploration on Yi-Sang's Novel, 'Bong-Byoul-Kee'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神經精神醫學教室

趙 斗 英**

本稿는 著者가 이미 발표한 「李箱 初期作品의 精神分析」(趙斗英, 1977)과 「李箱 初期詩作品의 精神分析」(趙斗英, 1978)과 관련을 갖고 그 뒤를 잇는다는 뜻에서 쓴 大題 「李箱研究」의 제 3 편격이 되는 논문이다.

「李箱」하면 소설 「날개」의 작가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人間史的으로 그를 이해하는데는 오히려 「날개」보다 발표가 더 늦게 되었고 또 잔막하게 쓴 이 「逢別記」(李箱, 1936)가 좀 더 좋고 기본적인이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 「錦紅」은 실제로 작가인 李箱과 관계를 맺었던 여자의 妓名으로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逢別記」는 거의 다 가 실제의 사실을 작가가 겪은 그대로 라고 평하고 있기 때문이요, 「날개」는 李箱과 錦紅과의 인간관계중 어느 한 부분을 과장하고 확대해서 쓴 것이나 「逢別記」는 그 시작과 끝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하였다는 까닭이요, 그리고 저자는 우선 「逢別記」를 분석 이해하고 난 뒤 이를 토대로 하여 기회를 보아 「날개」를 좀 더 세밀히 분석할 의도를 가졌음도 본고 작성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싶다.

저자는 편이상 본고를 3부로 나누어 제 1부에서는 「逢別記」의 내용 요약, 제 2부에서는 작가의 이 작품 언저리에서의 人間史를 요약한 뒤 제 3부에서 주로 被虐性의 특징을 들어 이에 대한 分析學的 문헌 소개와 더불어 작품·작가의 분석을 시도코져 한다.

「逢別記」의 내용 줄거리는 대개 이러하다.

* 본 연구논문은 1978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비의 보조로 이루어진 것임.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의학교실, 助教授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3세 되던 해 3월, 나는咯血이 있어 한약 한 제를 지어가지고 요양차 B라는 온천에 갔다. 그러나 무료함을 못참은 나는 사흘만에 장고소리 나는 술집을 찾아가 거기서 妓生 錦紅이를 만났다. 체대가 비록 뜻고추만하나 강그러진 계집이 제법 맛이 매운 여자였다. 그녀를 16세, 기껏해야 19세 정도로 짐작했고 그녀는 나를 의외로 39 아니면 40세로 보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그녀는 21살이었다. 그날은 그냥 점잔만 빼다 왔고, 이튿날 농하는 사이인 畫友 K가 B로 나를 찾아왔기에 둘이 같이 그녀에게 갔더니 코밑 수염을 자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어제 왔던 수염 난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는 억살을 떤 뒤 놀다가 나오면서 슬쩍 K에게 그녀와 그날 밤 동침하도록 권해 보았으나 눈치를 챈 K는 슬그머니 피해 버렸다. 이렇게 되어 나는 드디어 그 밤 그녀와 동침을 하는데 이때 그녀는 자기가 16세에 임신하여 17세에 딸 하나를 낳았다가 둘 만에 죽인 經産婦임을 고백한다. 이런 일이 있는 뒤 우리 두 사람은 매일 밤을 花代없이 같이 지낸다. 서로가 좋아하는 때문이다. 한편 나는 같은 여관 손님으로 와 있는 불란서 유학생 禹씨와 변호사 C씨에게 그녀를 소개하여 동침하도록 주선하고, 그렇게 벌은 돈으로 둘이는 회회낙낙 생활을 한다. 독탕 문간에 나란히 벗어놓은 그녀와 다른 남자의 신발을 보고도 나는 언짢지가 않았다. 약탕관을 집어치웠는데도 어느틈에 나의 겨혈은 사랑의 힘 때문인지 멈춰 있었다. 시간이 흘러 伯父의 소상이 되었기에 나는 서울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10원짜리 지폐를 한 장 주고 떠나오는 내 앞에서 그녀는 울고 있었다.

금홍은 드디어 내 아내가 되었고 우리 내외는 참 사랑하였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하였다. 1년이 지나는 사이 그녀에게는 옛생활에의 향수가 왔고 나는 반면 낮이나 밤이나 하는 일 없이 누워 잠만 자

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밖에 나가 심심치 않게 놀고 돌아오는 일이 생겼고, 처음에는 이런 情事를 내게 자랑삼아 얘기하더니 뒤에는 이 마저 숨기는 눈치였다. 나중에는 그녀의 정사를 돕기 위해 내가 외출을 해주는데까지 이르렀던 어느 날, 나는 이유없이 그녀에게 몹시 얻어 맞았고 무서워 도망나갔다. 나흘 만에 돌아와 보니 그녀는 家出한 뒤였다. 젊은 어느 남자와 멀리 떠나더라는 소문이다.

두 달이 지나면서 나는 그녀를 말끔히 잊게 되었는데 난데없이 초췌한 모습의 그녀가 울면서 돌아와 나를 원망하며 일면 용서를 비는 것이다. 당장은 그러한 그녀를 물리쳤지만 남기고 간 2人용 버섯냄새의 유혹을 이길수 없어 「중병에 걸렸으니 오라」는 기별을 보내 그녀를 불러드렸다. 그녀는 두 팔을 부르르치고 나가서 벌어다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기를 5달이 지난 뒤 그녀는 재차 家出코 만다. 어언 나는 37세가 되었구나. 천하의 여성은 다소간 매춘부의 요소를 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세상을 정리해 집으로 돌아오니 心身은 노쇠해가며 이제는 이 땅에서의 생존이 어렵다는 실정이다. 나는 東京이라도 가야겠다고 허풍을 치고 다니는 혼동된 생활로 그날 그날 이어가는데, 난데없이 금홍이가 다시 서울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린다. 찾아간 나의 면상을 향해 목침이 날라왔으나 나는 예나 다름없이 못나게 웃어만 주었다. 술상에 마주 앉은 우리들은 이제 이 生에서는 永離別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함께 寧邊歌를 부른다.



李箱이 출생하여 21세가 되던 때까지의 人間史는 저자가 이미 줄고 「李箱 初期作品的 精神分析」과 「李箱 初期 詩作品的 精神分析」에서 기술한 바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 이후 부터 시작하여 이 「逢別記」의 여주인공 錦紅과의 逢別이 실제로 있었던 즈음 까지를 요약 하겠다. 이를 위해 저자는 「李箱評傳」(高銀, 1974), 林鍾國과 金容稷이 엮은 李箱의 生活年代表, 「九人會」同人이었던 趙容萬의 진술, 그리고 李箱 자신이 쓴 수필·수상의 내용을 참고·인용하였다.

1931년과 32년은 李箱 자신이 「2千點에서 30點을 고르는데…」라고 말한만큼 그의 詩作이 왕성하였던 시기다. 그러나 한편 그의 건강은 나빠져서 肺結核에 대한 치료로 한약·양약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던 때이기도 하다. 伯父家の 몰락은 서서히 계속되어서 투자한 薪

炭業·양복점·간장공장이 연달아 실패하니 백부는 집전돌만 남기고 垆地를 팔기에 이르렀고, 1932년 5월 드디어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백모는 汶卿을 데리고 따로 나가 살고 李箱은 잠시 조모를 모시고 살았다. 그러면서 총독부 건축기사로 여전히 義州通 공사장에 나갔으나 日人 윗사람과의 사이는 나빠져 갔다. 저녁에는 화가 具本雄, 소설가 朴泰遠등과 어울려 「樂浪팔라」에서 담소하다가 그중 돈이 넉넉한 具本雄이 앞장을 서 술집 순례를 하는 일과였다. 32년 11월에 쓴 散文「얼마 안되는 辯解」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群衆인양 싫다. 그는 드디어 방안에 가득하도록 複數되었지만 어느 힘의 滲透를 허락치 않았다. …無意味한 1년이 한심스럽게도 그에게서 詩까지도 추방하였다. 그는 「죽어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을 찾고 죽자하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詩 이외에 무엇에서도 있을수 없었다…」

발표는 1939년 5월 靑色紙 제 5집에서 였으나 末尾에 「(義州通工事場에서)」라고 부친 것을 보아 그가 총독부 기사직 사임 이전에, 그리고 결핵을 앓고 있는 시기에 쓴 것이 분명한 隨想文 「病床以後」를 보면 그 내용은 대개 이러하다——결핵의 악화로 高熱과 의식혼탁을 해매는 그에게 의사가 왕진을 오고 걸드려 한 약도 따로 대려 먹는다. 病床 옆에는 친구 자신이 그려 보내준 「夢國風景」이란 제목의 그림이 붙어있다. 혼수상태로 빠질 때면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이 참혹한 乞人임을 본다. 지난 수개월간을 극도의 절망상태에서 살아왔다는 탓일까. 의식을 잃기 시작한 첫날밤 같은 친구가 보내 준 편지(「그것은 글로서 절절한 것 이었다 하겠으나 한 순한 인간의 비통을 초한 인간기록 이었다.)를 읽는 동안 그의 가슴에는 무서운 原始性的 힘 이 북바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참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는 이 순한 인간에게 대하여 어찌 나는 거짓을 가지고만 밖에는 대할 수 없는 것은 이 무슨 슬픈 일이나. 의식이 회복한 그는 이제는 참다운 인간이 되겠다고 스스로 맹세하며 그 친구와는 굳센 「同志」라는 힘을 느낀다.

1933년 초, 李箱은 가족과 의논하여 양쪽 집을 모두 판고 대신 孝子洞에 방 2개에 부엌 하나 달린 집을 사서 祖母·父母·弟·妹와 모두 함께 살게 되니 이 것이 그가 「젓 떨어져」 양자로 나간 이후 처음 옛 집으로 돌아 온 폭이 된 것이다. 이때의 심정을 쓴 것이 隨想文 「슬픈 이야기—어떤 두 週日동안」으로서 발표는 死後인 1937년 6월호 「朝光」紙에 된 것이다——「…무슨 일이 있으려나——대궐에 초상이 났나보다——나는 팔

짱을 끼고 오래동안 잊어버렸던 우두자죽을 만져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다 얼고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生日도 이름도 모르십니다. 맨 처음부터 친정이 없는 까닭입니다...젓 떨어져서 나갔다가 23년만에 돌아와 보았더니 여전히 가난하게 사십니다...내 곁에는 내 女人이 그저 병어리 처럼 서 있는 채입니다. 나는 가만히 女人의 얼굴을 쳐다보면 참 희고도 애처롭습니다. 이렇게 어둡침침한 밤에 몸시계처럼 밝고도 깨끗합니다. ...아—저런 얼굴에—그러나 입맞출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 맞출 자리란 말하자면 얼굴 중에도 正히 아무것도 아닌 자그만한 빈터전 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건만 이 女人의 얼굴에는 그런 空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나는 태엽을 감어도 소리 안나는 女人을 가만히 가져다가 내 마음에다 놓아두는 中입니다. 텅 텅 비인 내 母體가 亡할때에 나는 이「시모-느」와 같은 女人을 滯한채 그려드립니다. 이 女人은 내 마음의 잃어버린 題目 입니다. 그리고 未久에 내다 버릴 내 마음 잠깐 걸어두는 한 개의 못입니다. ...女人—내 그대 몸에는 손가락 하나 대이지 않으리다. 죽음시다. 『따블 프라토닉 쉬사이 인가요』 아니지요—두 개의 싱글 쉬사이드지요...」

그해 3월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李箱은 드디어 총독 부를 사임하고 요양차 白川溫泉에 간다. 며칠 뒤 뒤따라 찾아간 畫友 具本雄과 거리를 걷는 장면을「키 크고 洋人처럼 창백한 그와 폼주인 貝本雄이 같이 걷는 것이 마치 곡마 단원처럼 보여서 골애들이 우루루 따라 다니더라」고 九人會同人 趙超萬은 말하고 있다. 李箱은 그곳에서 妓生 錦紅을 만나 두 달을 같이 지내다가 5월에 귀경한 뒤 6월 金홍을 상경시켜 동서 생활에 들어가는 일방 鍾路 1街에 다방「제비」를 개업하였다. 金홍은 마담 격으로 차를 팔고 그는 낮이면 다방에 붙은 골방에 들어앉았다가 저녁에 친구들이나 와야 나와서 얘기를 하는 생활을 하였다. 『쓸만한 물건을 하나도 못 가진 병신야. 게다가 돈도 벌 줄 모르는 버저리지 뭐야』라고 金홍은 소년 종업원에게 풍공연히 이야기 할 정도로 그의 다방·性생활 운영은 무능하였던 것 같다. 처음에는 半公開的 이었던 그녀의 다른 남자와의 情事는 차츰 공개적으로 되었고 이에 따라 李箱은「기동시방」으로 자처하며 지낸 1년 뒤, 즉 1934년 9월 그녀는 어느 남자를 따라 家出하였다. 곧 이어「제비」는 日本人 건물주로부터 税金不納을 이유로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그의 권력으로 열린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로 폐업 축출되어 문을 닫았다. 두 달후 다시 돌아온 金홍은 카페에 여급으로 나가 그를 잠시 벌어먹이더니 1935년

봄 들은 아주 헤어졌다. 「逢別記」는 그와 그녀의 관계 자초지종을 요약한 것이요, 그의 「날개」는 1934년 봄의 그녀의 생활을 그리고 「蜘蛛會豕」은 1934년 12월의 생활을 묘사한 것으로 여러 文學評論家들은 보고 있다(廉武雄, 1976). 그러나 金홍이 1차 가출한 사이 李箱은 친구 鄭人澤이 작사사랑하던 카페「쓰루(鷄)」의 여급 順玉과 깊은 교제를 갖기도 하였으나 이를 안 鄭이 자살기도를 하자 깨끗이 그녀를 단념하였다. 그는 그뒤 카페「鷄」, 다방「69」를 잠시 운영하다 모두 실패하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그때가 1935년 봄 이다.



李箱의 거의 모든 소설이 그러하듯 「봉별기」역시 자기생활의 고백·독백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야기의 주인공 「나」인 李箱은 객혈까지 이른 폐결핵으로 악화된 건강을 돌보지 않고 禁忌인 女色을 탐하고 그런 자기 여자를 낳 선 남자에게 소개하여 동침케 하면서 언짢기는 커녕 즐거우며, 기동시방으로 자처하면서 재미들린 그녀의 自發的·公開的 情事를 묵인 권장하고, 이윽고 그녀에게 매를 맞아 도망다니며,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나섰던 그녀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놓친다. 여기에 그가 金홍과 맺은 被虐的 關係가 있는 것이다.

被虐性(masochism)은 不快의 追求 즉 性的 쾌감을 얻자는 의미에서 肉體의 고통이나 精神的 고통을 찾는다는 것으로서 이런 快感이나 追求 그 자체, 아니면 이들 모두가 의식적이라기 보다 無意識的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보통 定義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快樂原則(pleasure principle)에 따름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터에 오히려 고통을 찾는다니 이 무슨 영문인가. Freud는 몇가지 방법으로 비록 일관성은 없으나 이렇게 설명코저 하였다. 그는 논문 「諸本能과 이의 浮沈」(1915)에서 원래 인간이 外界 對象에게 품었던 加虐的 衝動과 所望이 어떤 까닭이 있어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진 것으로 보고, 따라서 1차적 현상은 어디까지나 加虐性(sadism)이요, 被虐性은 다만 그 2차적 현상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가담」을 兩價感情(ambivalence)으로 待하다가 그만 상실하고 만 對象과의 同一視(identification)라는 심리기제라고 「애도와 우울」(1917)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Freud는 이 同一視라는 기제 말고도 다른 요인이 被虐性을 이루는데 관여한다고도 말하였으니, 「성에 관한 隨想 3篇」(1905)에서 그는 환경적 요인과는 거의 별개로 차

라리 本能的인 것이라 할수 있는 요인을 들었었다. 즉 어느 生物體가 강렬한 어떤 자극, 심지어는 고통을 주는 자극을 받을때 性的 흥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때 그 生物體의 能力(本能, capacity)은 개체마다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가 만약 과학적 성격의 사람인 경우 자극으로 인해 性的 흥분과 때로는 오르가슴까지 경험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행위를 하거나 그런 환상을 지닌 환자를 분석한 경험을 쓴 「어린이가 얻어맞고 있다」(1919)에서 Freud는 이들에게 있어 고통과 성적흥분 상호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면서, 고통이 쾌감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고통이 性的快感에로의 條件(condition)이라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 뒤에 쓴 「被虐性的 經濟問題」(1924)에서 이를 참고하여 기왕의 자기 의견을 수정하였으니 고통스런 자극과 과도한 긴장감은 小兒에게 정상적으로 性的 흥분을 야기하며 이와 똑같은 현상이 평생토록 일어나는 것이 바로 被虐性格者라는 것이다. 소아기의 이런 능력(capacity)은 나이와 더불어 파츨 매달라 버린다 해도 「心的超機構(psychic superstructure)로 단단히 쌓여진 生理的 밑바탕(physiological substrates)이 發性的(erogenic)被虐性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Freud가 과학성을 설명하려 든 것이 바로 죽음의 本能(Thanatos)이라는 것을 통해서이다. 「快樂原則을 넘어서」(1920)에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를 파괴코저 하는 충동은 인간 누구에게나 출생때부터 있어 쾌락원칙과는 무관하게 또는 對稱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被虐性이 1차 현상이 되고 그 파괴대상이 자신이라는 것에서 他物로 옮겨 간 加虐性 2차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이렇게 생긴 加虐性이 다시 同一視 기제를 타고 자기에게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다.

Freud가 「어린이가 얻어맞고 있다」(1919)에서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소녀들이다. 자주 떠오르는 환상이 매리는 광경이라고 하는 환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미워하는 아이를 때리고 있다」는 환상인데 이상하게도 그때 快感이 없음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좀 뒤에는 이것이 「아버지가 나를 때린다」는 것으로 바뀌는데 이는 當者의 自慰行爲로 얻는 만족감과 관계가 있다. 다시 환상은 「다른 아이가 얻어맞은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으로 바뀌니 여기에는 명백히 強烈한 性的 흥분이 붙어있다. 요는 환자의 무의식에서는 『아버지는 나를사랑한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를 때리지!』라는 뜻이 있음을 말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性器接觸을 한데 대한 懲懲인 동시에 그런 관계를 뜻하는 退行的 代置物(regressive substitute)이다. 그리고 加虐性이 被虐性으로 변하게 만든 것은 罪責感(guilt)과 부모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少年이 가진 비슷한 때리는 환상(beatng-phantasy)은 소녀에서 보다 受動的인 것으로 이는 그가 아버지에게 취하는 女性的姿勢(feminine attitude)에서 온다. 그러니 잘 따져보면 이들 얻어 맞는 다는 환상을 지닌 사람들의 문제는 嬰兒期(兒童期) 性的葛藤(infantile sexual conflict), 특히 에디프스의 갈등에 있는 즉 같은 문제에서 오는 神經症과 다를 바가 없다. 맞고 싶다는 소망은 이런 에디프스의 不安함(oedipal strivings)이 退行·變形된 것으로 실은 加虐性肛門期(肛門性加虐期, anal-sadistic phase)에서 유래되었다고 Freud는 보았다.

Reich는 「性格分析」(1933)에서 被虐性的 특징의 하나로 抑制的露出(inhibited exhibitionism)을 들면서, 본질적으로 사랑에 대한 요구가 남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서 그런 욕구가 만족 못할 때 나오는 분노(rage)라 하였다. Reik는 「現代人的 被虐性」(1941)에서 대체로 Freud에 찬동은 하면서도 응징을 무의식적으로 요망한다든가 자기에게 화살이 둘러진 加虐性 같은 超自我 범주내에서만 설명은 어쩐지 부족하다면 被虐性이란 환상에서 나타나거나 실제 현실에서 완곡하게 나타나는 어떤 인물을 향해서 뻗어나는 野心的·攻撃的·反抗的인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諸衝動의 복합된 표현이라고도 해석된다 하였다. 그리하여 과학성을 「敗北를 통한 勝利」(victory through defeat)라 정의하였고 Reich가 강조한 「抑制」된 노출과는 정반대로 이에겐 차라리 「과시하는」(demonstrative) 요소가 있음을 말하면서, 당자가 구박받고 쪼쪼매면서 남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음을 한사코 밖에 나타내려 하는 이면에는 고집불통·독재·적개심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지않으냐고 하였고, 그러나 이런 과학성은 사람이면 누구나에게 조금씩은 다 있는 현상으로 보았다. Berliner(1947)는 과학적 성격형성이 부모·자식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오는 바 잔인하고 냉담한 부모에게서 사랑대신 냉대·모욕·응징만을 받아온 자식이 커서도 남에게서 이런 「사랑 代用物」을 찾으려는 경향을 과학성이라 설명하였고 이때 자식은 냉대를 「사랑 그 자체」로 여기게 되는데 이에겐 自我防禦機制로서 상대방 敵意에 대한 否認(denial), 원래 내가 품은 그에 대한 적의의 反動形成(reaction formation), 그리고 상대방의 냉대를 보고 시초부터 내가 못났었구 라고 여기게끔 만

드는 內攻(introiection)이라는 3가지가 작용한다 하였다. 즉 그는 피학성을 自我領域에 속하는 防禦機能에 중점을 두고 보았다.

Brenman(1952)은 자기와 남을 한꺼번에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對話에 능하고 또 그런 대인관계를 누구나와 잘 맺는 특기를 가진 15세 소녀를 장기 분석치료를 경험한 들어 道德的被虐性(moral masochism)을 분석하였다. 즉 이 예에서 불쾌 끊임없이 남에게 주고 빼앗기다가 끝장에는 버림을 받고야마는 이 환자 행동이 실은 남에게 그지없는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衝動과 이런 기대에 어긋난 것을 해 온 상대방을 내치고 싶은 衝動, 이 두 충동이 함께 投射된 것이라 하였다. 즉 Brenman은 Berliner가 제시한 否定·反動形成·內攻 3가지 방어기 제외에 投射(projection)를 추가한 것이다. 이 소녀가 늘 품고 다니던 환상이란 조만간 자살한다는 것으로 임종시에 달려온 부모·언니가 『실은 우리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었구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Brenman은 피학적 성격형성을 本能的欲求 하나 만으로, 또는 自我의 防禦라는 것 만으로, 아니면 超自我의 작용 하나만으로 볼수가 없는 복합적 요소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본능을 만족 시킨다는 뜻에서 「이드」를, 응징·속죄·금욕이라는 뜻에서 「超自我」를, 그리고 방어라는 의미에서 自我를 모두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Berliner(1958)는 피학성이 지닌 방어라는 역할을 강조하여 이는 중요한 對象關係(object relationship)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고 동시에 만약 잃는다면 심한 불안울 겪을 그런 대상을 잃을 위험을 피하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Lowenstein(1957)은 어린이들의 행동과 환상을 살펴본 뒤 이들 어린이가 저회거리 노는 속에서 때로는 근엄한 어른들 예에서 벌을 받는 시늉을 하고 아내 다시 그 어른이 어린이를 용서하여 얼싸안고 더욱 귀여워해주는 시늉을 하는 것을 하는 데에 착안하여 被虐性은 「꺾박자를 유혹하는」의미가 있다 하였다.

그리고 Brenner(1959)는 피학성은 인간 누구에나 조금씩 정상적으로 있음을 강조하고, 언제나 加虐性이 함께 있는 법이니 부를 때도 「加虐·被虐的」(sado-masochistic)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하면서, 이같은 성격형성과 환상은 대부분 경우 에디프스의 갈등 같은 諸兒童期性的葛藤의 遺産이라 하였다. 어린시절 對象喪失이나 사랑의 상실 위험이 있든가 去勢(castration)당할 위험이 있든가 하는 환경을 겪게 되면 인간은 그 위험 때문에 자기를 방어키 위해 被虐的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봉별기」 주인공인 「내」가 錦紅이를 대하는 관례란 일방적으로 피학적인 것은 아니다. 따져보면 그녀를 먹여 살리는 임무를 포기하여 여자 스스로 별게 하고 심지어 매춘으로 얻은 화대까지 생활비로 쓰게 하고 情事를 은연중 권장까지 하니 이는 그녀에 대한 加虐이기도 하다. 고로 加虐·被虐的關係로 두 主人公은 얽혀있으니 「내」가 그녀에게 품은 무의식적 의존심과 증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의 정도에 짐작이 간다. 그렇다면 이 여주인공 금홍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作者 李箱은 자신과 관련된 누구를 소설에서 금홍이로 내세우고 있는가, 실제로 금홍과 동서생활을 하던 李箱의 無意識은 그녀를 누구로 받아리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錦紅은 李箱의 生母를 象徵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봉별기」 주인공 「나」는 초면의 금홍이의 나이를 실제보다 어린 16~19세로 착각한다. 李箱의 生母가 시집 온 나이가 16~17세요, 그를 낳아준 나이가 18세이며, 그를 양자로 보낼때 까지 품에 안고있던 나이가 19세이니, 요는 그의 出生·育兒에 관계한 어머니의 나이이다. 둘째, 금홍은 반대로 초면인 「나」의 나이를 39~40세로 본다. 당시 李箱의 나이는 22세이고 生父 나이는 46세였는데, 그녀는 「나」를 아버지에게 가까운 나이로 본 것이다. 셋째, 두번째 그녀를 찾았을 때 「나」는 코밑 수염을 아주 밀고 갓고 어더서 본듯하다고 의아해 하는 그녀에게 『옛저녁에 왔던 수염난 양반 내가 바로 아들이지. 목소리 까지 닮았지!』라고 능청을 쏜다. 아버지가 상대한 여인을 오늘은 그 아들이 상대한다는 뜻이다. 넷째, 李箱의 어머니는 그 출신이 분명치 않고 자기 姓도 이름도 生日도 모르는 孤兒였다. 이런 여자를 아버지가 과거를 묻지 않고 쳐로 맞았으니 朴世昌이란 어머니 이름은 실은 결혼신고 때 급해진 伯父가 지어준 이름이다. 그런데 「봉별기」에서 남주인공은 「서로 지나간 일은 묻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라야 내 과거가 무엇 있을 까닭이 없고 말하자면 내가 금홍이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이나 다름없다」고 쓰고 있으니, 어머니와 금홍 두 女人은 모두 과거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들인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자기들 아내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같다. 다섯째 「봉별기」의 K君은 현실세계에서 화가 具本雄임은 말 할 여지가 없다. 李箱의 수필 「病床以後」에서 보면 具本雄은 그에게 위문편지를 보냈고 李箱은 여기에서 「참다운 인간」과 「군센 同志」가 되려는 큰 힘을 얻는다. 具本雄은 그 당시 부자로서 李箱의 슬픔을 대는 것 같은 큰 兄 형세

를 하였으니 李箱에게는 莫強한 父像으로 부각되었을 존재다. 「봉별기」에서는 그런 K 군에게 금홍이와 『얼리보라』고 주인공이 권한다. 여섯째, 「내」가 애청하여 금홍과 상관계를 맺은 「禹라는 불란서 유학생」과 「C라는 변호사」는 그 문구로 보아 주인공 보다 年上이었음을 알 수 있다. 年長者·돈 있는 者·권력있는 者·學歴이 높은 者, 즉 父像으로 부각되는 인물에게 금홍을 권하였다. 일곱째, 그가 白川 가기 전에 쓴 「얼마 안되는 辯解」에서 「죽어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을 찾으려고 죽자 하고 애를 썼다」는 대목이 있고, 「슬픈 이야기」는 어머니가 읽었다는 말과 그 바로 뒤에 입 맞출 빈 터가 전혀 없는 얼굴을 가진 「이 여인은 내 마음의 잃어버린 제목」이라는 대목이 있다. 즉 李箱이 자기 어머니의 품을 그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는, 아니 그의 에디프스의 사랑이 거의 僞裝되지 않은채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백천은천으로 떠나기 직전 李箱의 무의식은 未解決된 에디프스의 갈등에서 오는 긴장으로 충만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의 放散出口를 찾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봉별기」에서 주인공은 「여섯 달 잘 기른 수염을 하루 면도칼로 다듬어 코밀에 나비만큼 남기고」 온천으로 떠났고, 온천에서 두번째 금홍을 찾아갈 때 이 코밀 수염 마저 아주 밀고 갔다. 수염이나 털이 나이 많고 남성적인 것의 상징이라 할 때 「나」는 무의식에서 자신을 成人에서 少年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李箱과 錦紅의 결합은 그의 에디프스의 갈등의 行動化(acting out)라고 하겠다.

실제로 에디프스 시기의 李箱은 양자로 가 있던 伯父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친부모 집에 혼자 몰래 다니곤 하였는데 이를 안 伯父가 李箱은 물론 그 부모들을 따로 불러 몹시 야단을 쳤다는 것이다. 그러니 반감게 맞아드리고 더 오래 데리고 지내고 싶었으나 그 어머니는 생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시숙의 호령과 뒤따를지 모르는 경제적 응징을 겁내어 일찍 그를 돌려 보내거나 일부러 쌀쌀하게 대해주어 정이 떨어진 그가 다시 찾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이니 4~6세인 그는 이에 의아해하고 실망하고 분노하였을 것이다. 그가 「죽자 하고 찾아 헤낸 것」 「마음속의 제목」 「입 맞추고 싶은 얼굴의 여주인공」, 같이 아니면 제각기 자살해버리자던 여주인공은 두 말할 것 없이 이 어머니로서, 어른들이 정한 禁煙사형인 生母訪問은 한편 그의 에디프스의 갈등의 해결은 커녕 이를 더욱 深化 시켰을 것이다.

여러 의미에서 어머니를 상징하는 여인이 되는 錦紅과의 동서생활은 그의 정신세계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

을 던졌다 하겠다. 母情에 굶주렸고 게다가 애타는 에디프스의 갈등이 있어온 그에게 있어서 이드의 욕구가 일순간은 충족 되었기때문에 저어가지고 온 한약을 집어치우고 오로지 그녀를 사랑하는데 몰몰했는데도 사랑의 힘에서인지 略血이 다 밟혔을 정도의 변화도 있었다. 어머니로 보았기에 그는 놀면서 그녀에게 생계를 의존하였고 또한 중요하였기에 그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결과는 이 에디프스의 갈등 行動化에 따라 오는 죄책감 이었던 바, 이의 압력에 견디지 못한 그는 여자에게 얻어맞고 구박받고 배반까지 당하는 곤욕의 길로 자신을 몰아부침으로서 자기를 응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뒤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계속 자기를 파괴하는 길로 서서히 아니 급속히 접어들게 되는 것이니 4년 뒤 재지에서 맞은 참담한 임종의 진주가 이에 비롯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逢別記」, 맞났다 헤어졌다는 이 작은 사연도 알고보면 그 原因과 結果가 엄청난 봉별이며 逢變이기도 하다.

—ABSTRACT—

A Psychoanalytic Exploration on Yi-Sang's Novel, "Bong-Byoul-Kee"

Doo Young Cho,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Relating with the author's two previous articles, 'Analysis of Yi-Sang's early works, focused on maiden novel, "December 12th"' and 'A psychoanalytic study on poet Yi-Sang's early works', the author tried to analyze the same writer's novel, 'Bong-Byoul-Kee', meaning 'an episode of prief encounter' in English, a love story about a young man, 'I', in his masochistic relationship with a second-class geisha girl, to find out the writer's unconscious motivations and psychological impacts on his real life.

(2) In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the author made a resume of the novel, in the second part presented a short biographical picture about the writer before, during and after the latter's real encounter with a geisha girl, and made it clear that this novel was an almost autobiographical note about the latter's chaotic life in his early twenties.

(3) In the third and final part, the author, reviewing psychoanalytic literatures on masochism written by Freud, Reich, Reik, Berliner, Brenman, Lowenstein and Brenner, described Yi-Sang, identifying the geisha girl as his biological mother, acting out of his unresolved oedipal conflicts by sharing the bed together with the girl, and falling into confused, guilt-ridden, self-destructive life thereafter out of guilt.

REFERENCES

- 高銀：李箱評傳，初版，民音社，서울，1974.
- 金容稷(編)：李箱，初版，文學과 知性社，서울，1977，p. 220-224.
- 廉武雄：內面の 手記—李箱의 小説들(李箱：李箱創作集，初版，正音社，서울，1976，p. 215-214).
- 李箱：얼마 안되는 辯解，年度未詳，(高銀 李箱評傳 p. 195에 引用).
- 李箱：逢別記(1936)，(林鍾國編 李箱全集 1:151-166).
- 李箱：슬픈 이야기—어느 두 週日동안(1937)，(林鍾國編 李箱全集，3:71-83).
- 李箱：病床以後(1939)，(林鍾國，李箱全集 3:61-63)
- 林鍾國(編)：李箱全集 初版，3:315-324，泰成社，서울，1956.
- 趙斗英：李箱 初期作品的 精神分析—「12月 12日」을 中心으로 하여，神經精神醫學，16:3-22，1977.
- 趙斗英：李箱 初期 詩作品的 精神分析，神經精神醫學，17:53-66，1978.
- 趙容萬：序文(林鍾國編 李箱全集 1:1-5).
- Berliner, B.: *On some psychodynamics of masochism*, *Psychoanal. Quart.*, 16:459-471, 1947.
- Berliner, B.: *The role of object relations in moral masochism*, *Psychoanal. Quart.*, 27:33-56, 1958.
- Brenman, M.: *On teasing and being and being teased: and the problem of moral masochism*,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7:264-285, IUP, N.Y., 1952.
- Brenner, C.: *The masochistic character; genesis and treatment*, *J Amer Psychoanal. Association*, 7:197-226, 1959.
- Freud, S.: *Three essays on sexuality (1905)*, *Engl. St. Ed.* (8th), 7:125-243, Hogarth Press, London, 1957.
- Freud, S.: *Instincts and their vicissitudes(1915)*, *Engl. St. Ed.*, 14:111-140, Hogarth Press London, 1957.
- Freud, S.: *Mourning and melancholia (1917)*, *Engl. St. Ed.*, 14:237-253, Hogarth Press, London, 1957.
- Freud, S.: "A child is being beaten" (1919), *Engl. St. Ed.*, 17:175-204, Hogarth Press, London, 1957.
- Freud, S.: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1920)*, *Engl. St. Ed.*, 13:7-64, Hogarth Press, London, 1957.
- Freud, S.: *The economic problem of masochism(1924)* *Engl. St. Ed.*, 19:157-170, Hogarth Press, London, 1957.
- Lowenstein, R.M.: *A contribution to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masochism*, *J Amer Psychoanal. Association*, 5:197-234, 1957.
- Reich, W.: *Character analysis (1933)*, Chapter XI, *The masochistic character*, Third Enlarged Ed., Farrar, Straus & Giroux, NY, 1949, p. 210-234.
- Reik, T.: *Masochism in modern man (1941)*, First Black Cat Ed., Grove Press, N.Y., 1962, p. 9-35.